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인적자원 육성, 고용창출, 지역사회 학습센터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인 아닌 방과후학교에까지 교사들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으로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실시율 및 참여 학생수 등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방과후학교를 둘러싼 문제를 진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수도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지원액을 확충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기에 앞서 서둘러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 이 연구는 서울시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급,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방과후학교 현황과 실태

1.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배경

-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4년 4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보충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바꿀 것을 지시하면서부터임.
-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활동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교육활

동'을 의미함.

-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후, 1996년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었으며, 2004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속으로 흡수시키고자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됨. 2005년 전국 48개 연구학교, 2006년 시범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2. 서울시 방과후학교 현황

1) 서울시 지원 현황

- 서울시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2008년에는 총 38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지원학교 40개교를 포함한 230개교, 초등 방과후보육으로 39개교를 지원함. 이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의 약 22%에 해당됨.

<표 1> 서울시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수(2008년)

(단위 : 개(%))

구 분	중점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보육	계
초등학교	12	55	39	106
중학교	23	65	-	88
고등학교	25	50	-	75
계	60	170	39	269

출처 :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교육지원담당관(2008). 내부자료

- 서울시 교육지원담당관 외에 여성정책관에서 지원하는 초등 방과후보육은 초등학교 1~3학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2008년 현재 197개 어린이집 380개반 5,282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액은 34억 7,700만 원임.

2) 자치구 지원현황

- 자치구마다 사업명은 약간씩 다르지만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약 63억원으로, 자치구 교육사업 예산 총액의 약 6.1%임.

- 자치구 간 방과후학교 지원액 및 지원비율에서 격차를 보임.

<표 2> 자치구별 방과후학교 지원액 및 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비율	2008년		
		교육사업 예산	방과후학교 지원액	비율
총로구	3	1,500,000	0	0.0
중 구	5	4,800,000	828,482	17.3
용산구	3	2,600,000	340,000	13.1
성동구	5	2,500,000	261,931	10.5
광진구	3	1,800,000	0	0.0
동대문구	3	4,500,000	300,000	6.7
종로구	5	4,000,000	2,010,000	50.3
성북구	3	3,500,000	107,760	3.1
강북구	3	3,000,000	500,000	16.7
도봉구	2	1,400,000	37,000	2.6
노원구	5	9,700,000	0	0.0
은평구	4	2,200,000	166,300	7.6
서대문구	5	2,700,000	84,000	3.1
마포구	5	3,100,000	204,685	6.6
양천구	3	2,900,000	13,000	0.4
강서구	5	2,300,000	0	0.0
구로구	3	6,000,000	285,000	4.8
금천구	7	1,300,000	68,800	5.3
영등포구	3	4,200,000	137,400	3.3
동작구	3	2,400,000	35,000	1.5
관악구	5	2,600,000	52,000	2.0
서초구	3	6,100,000	210,000	3.4
강남구	4	15,200,000	302,137	2.0
송파구	2	11,400,000	266,660	2.3
강동구	5	2,400,000	120,000	5.0
계	3.88	104,100,000	6,330,155	6.1

* 예산비율 : 2008년 구세 총액 기준 대비 교육사업 예산

출처 :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교육지원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 2007, 2008

3) 서울시교육청 지원 현황

-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시범학교와 거점학교 운영, 초등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제도,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이 있으며, 2008년에 153억 7,771만원을 지원함.

<표 3>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현황(2008년)

(단위 : 만원, 개)

사업명		학교수				총 예산	지원액(교당)
		초	중	고	계		
시범학교	교과부	1	1	1	3	18,000	900
	시교육청	9	2	2	13		
거점학교			11	3	14	50,680	3,620
초등 방과후보육		136 (172)	-	-	136 (172)	191,593	(시설비)3,000 (운영비)2,000
자유수강권						1,143,000	600
대학생 멘토링						152,498	
계		146	14	6	166	1,537,771	

주 : ()는 초등 방과후보육 교실 수

출처 : 서울시교육청(2008).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세출예산서」

서울시교육청(2008). 「2008년도 서울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http://www.sen.go.kr/>)

3. 서울시 방과후학교 실태

1)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 99.98%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5.3%가 직영임. 특히 고등학교는 100% 직영임.
- 방과후보육은 약 36.6%의 학교가 운영 중이며, 수급가정 비율이 높은 학교가 더 많이 운영함(59.6%).
- 프로그램 개설 실태
 - 개설 프로그램 여부 :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90.6%의 학교가 개설했고,

인성·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은 31.3%, 영재 교육프로그램은 20.9%의 학교가 개설함.

-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79.4%)보다는 중학교(99.7%), 고등학교(일반계고 99.3%, 전문계고 100%)에서 더 많이 개설함. 수급가정 비율이 높은 학교의 96.0%가 개설하여 낮은 학교의 81.4%보다 8.6%가 많음.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는 99.5%, 전문계고와 중학교는 각각 100%, 99.7%가 개설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77.4%가 개설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적음.

- 개설 강좌수는 학교당 평균 24.2개임. 학교급별로는 일반계고가 42.1개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중학교의 2배 정도임.

○ 참여 교사수 및 외부강사 수

- 학내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약 2.7명(6.7%)이 참여하여 가장 낮은 비율임. 중학교는 13.4명(28.1%), 일반계고는 33.1명(43.9%), 전문계고는 23.1명(35.6%)이 참여함.

- 초등학교 교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는 2/5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 강사수는 초등학교가 학교당 1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학교 4.2명, 전문계고 2.7명, 일반계고 0.9명임.

○ 강좌당 평균 수강비

- 초등학교 37,509원, 중학교 49,276원, 일반계고 61,206원, 전문계고 30,641원임. 이는 초등학교에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원어민 영어 강좌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다른 학교급보다 강좌당 평균 강사비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시간당 강사료는 초등학교는 50,578원, 중학교는 38,908원, 일반계고는

45,626원, 전문계고 31,538원이며, 평균 시간당 강사비는 44,718원임.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63.3%의 학교가 운영비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맞벌이 비율이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보다, 수급가정비율이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보다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외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이유로는 '신청하지 않아서'가 89.9%로 나타남. 이는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가 많고, 지원을 받으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원금을 꺼린다는 면담 결과와 일치함.

- 지원처 :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21.9%,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64.7%,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11.0%, 기타 2.3%로 나타남.

- 지원액의 사용 :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비 지원에 69.4%, 강사비 보전에 49.6%, 교구구입·교재개발비로 15.4%, 운영경비로 10%, 기타 사용으로 16.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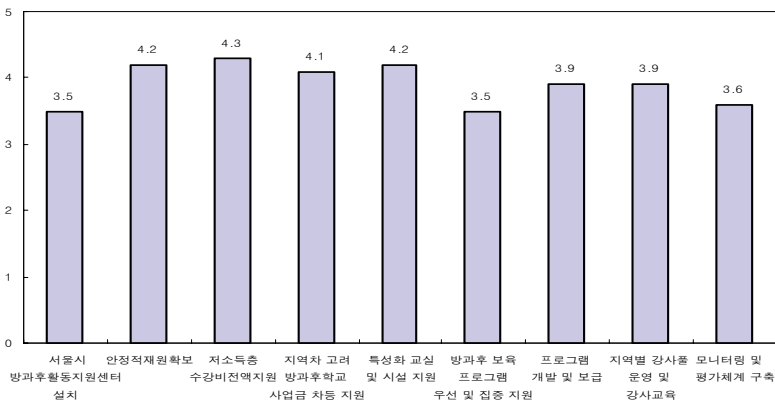
○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 방법은 1순위 응답에서 학교 자체에서 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높고, 서울시교육청 11.7%,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6.4%의 순임.

○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사항으로, 1순위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개선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19.6%, 방과후학교 시설 확충이 18.9%의 순임.

○ 방과후학교에서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88.5%의 학교들이 담당자나 관리자의 업무부담 증가를 꼽아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안전문제(3%),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 부담(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저소득층에게 수강비 전액 지원이 4.26점으로 가장 높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와 특성화 교실 및 시설 지원(4.22점), 지역차를 고려한 방과후학교 사업금 차등 지원(4.08점)이 그 다음으로 높음. ‘서울시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칭)의 설치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우선 및 집중 지원,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으로 조사됨.



<그림 1>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III. 정책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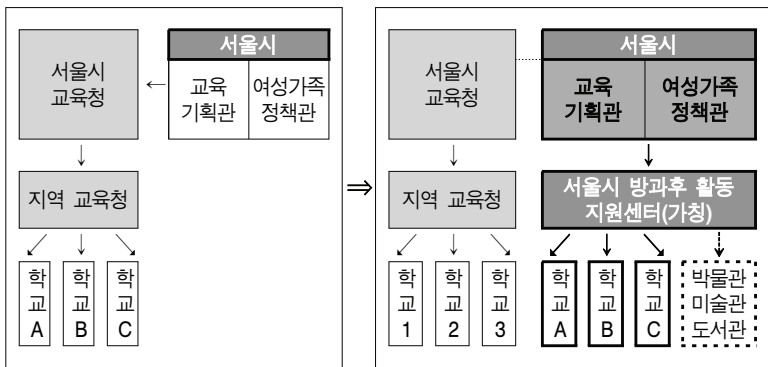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지역별,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함.
-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불리한 계층에게 그 불리함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
- 현재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수혜층을 확대시킴.
- 방과후학교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함. 현재의 지원금 제공의 ‘지원’ 패러다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주도’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감.

2. 서울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1) 운영 방식

- 서울시가 각 학교와 협약을 맺어 서울형 방과후학교로 만들어 책임지고 이를 운영함.
- ‘서울시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이 센터가 주도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맡도록 하는 방안임.
- 이 지원센터가 학교장과 협약을 맺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서부터 종료되는 시간까지 학교 시설과 학생 등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지는 방식임.



<그림 2> 서울시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

2) 프로그램

- 현재의 학교마다 차별화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운영 모형을 Total edu-care형, 보충학습형, 체험학습형, 소질계발형 등으로 특화·개발하여 각 학교급과 지역에 맞게 적용해 나감.

- ‘서울시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칭)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 방과후학교에 보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 프로그램의 계열적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함.
 - 전문가 외에 서울시교육청 및 교사들과 협조하여 개발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시설 및 물적 자원 활용과 연계함.
 - 인근의 2~3개 학교를 연계하여 인원수 부족에 따른 폐강 및 수준별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함.
 - 학교 시설 외에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 및 민간 시설의 활용을 지원하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설의 이용 정보 및 이용 신청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

3) 강사 확보 및 질 관리체계 구축

- 단계적으로 교사 중심인 현재의 강사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퇴직 교원, 지역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지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통합 관리하여 강사 또는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질 검증 기준 및 조건의 마련, 문제 강사에 대한 문책 및 징계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질 관리체계를 마련함.
-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정보교환과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4) 평가체계 구축

- 개발된 기본 모형에 따라 적합한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함.

5) 법·제도적 지원

- 방과후학교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